

DIOCESE OF SAITAMA

Tokiwa 6-4-12, Urawa-ku,
Saitama City
〒330-0061, JAPAN
TEL: 048-831-3150
FAX: 048-824-3532



カトリックさいたま教区

さいたま市浦和区
常盤 6-4-12
〒330-0061
TEL: 048-831-3150
FAX: 048-824-3532

사이타마 교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께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오 2,2)



주 예수님의 성가정의 이름으로, 2018 년의 성탄절과 새해 2019 년이 행복으로 가득차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짐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당과 공동체, 수도원 모든 분들께서 저를 새로운 주교로 받아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임 주교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2018 년 성탄절과 2019 년 신년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하느님의 모친 성모 마리아의 축일이자, 세계 평화를 기도하는 날로 시작하는 2019 년이 은혜 가득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사이타마 교구장 임명 통지를 받은 직후, 당시 교구 관리자셨던 오까다 다께오 대주교님으로부터, 사이타마 교구 사목자 대회(6 월 25 일 -27)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이타마 교구에서 일하고 있는 사목자들을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들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께노 호시 학원에서의 주교 서품식에는 일본 주교단, 해외의 주교님들과 수도회 관구장들을 시작으로, 사이타마 교구 사제단, 많은 신도들을 포함해 1600 명이 넘는 분들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분명히 진정한 성령강림이었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

서품식후에 시작했던 본당이나 수도원으로의 사목방문을 통해서 얻은 울림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미사나 대화를 통해서 저의 마음에 울렸 퍼졌던 것으로 교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생활의 스타일과 분위기에서의 카리스마적 수준과 또 다른 하나는 본당의 구조와 위원회 그룹 등의 조직적인 수준입니다.

사이타마 교구는 장래성이 있는 교구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며 언제나 새로운 활동으로 저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에서 드리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기도’는 하느님께서서는 섭리이시며, 자애심 깊은 마리아의 신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메시지를 동방의 박사들의 등장하는 장면과 연결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마침내 도착해서 아기 예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경배의 증거로써 아기 예수님께 각자가 준비한 선물을 봉헌합니다. 마태오 복음사가가 기록한 동방 박사들의 구절에 저 역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신복음선교의 모임에서, 일본인과 이민자들의 나눔을 가졌던 것처럼, 저의 신앙은 그 원점이 동방박사들이 보여주었던 여정과 비슷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동쪽에서 별을 본 젊은 부부

1964년 5월 31일, 저의 가족은 요코하마 항구에서 아르헨티나로 출발하였습니다. 일과 수입, 지은 지 얼마되지 않은 집, 그리고 친척, 친구들을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12,1)

이 꿈은 책과 라디오 강좌를 통해 독학한 스페인어의 도움으로 분명하게 실현되었습니다. 35세의 나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에 있어 이 사건은 강한 하느님의 역사하심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가장 결정적인 결단의 때, 젊은 부부였던 저의 부모는 그 걸음걸이가 하느님의 꿈의 실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별을 따라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별이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 요한이라는 안데스 산맥의 기슭에 있는 지역에서는 일년에 서너 번밖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부부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함께 한다는 안심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전공사(電電公社)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구축된 안정된 생활로부터, 돌연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스페인어의 속담을 배운 듯합니다. “A Dios rogando y el mazzo dando”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망치를 두드린다). 아침은 기도로 시작하고, 밤에는 로사리오 한꾸러미를 바치며, 아홉 명의 자식들을 ‘모험의 정신’으로 키워나아갔습니다.

형제 한 명 한 명이 여러 경험을 하며 오늘에 이르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는 말합니다. ‘걷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 (Caminante no hay camino, se hace camino al andar.)

새로운 복음선교의 별(EN2, EG284)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우리 교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연결해서 메시지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종료 10 년 후, 현대사회의 복음선교에 관한 사도적 권고(‘Evangelii Nuntiandi’ 1975,12,8)에서, 마리아에 대한 여러 명칭들 중에 ‘복음선교의 별’(EN82)이라는 새로운 보석같은 이름이 더해졌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성모 마리아 없이 우리는 새로운 복음선교의 정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EV284) 충실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사랑받기 위한 적절한 말과 행동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을 성모 마리아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성모께서 행복의 진정한 샘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해 주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걸기 시작하는 교구로서,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의 어머니인 마리아께서 우리의 여정에 있어 확실한 별이기를 바랍니다.

목자로서, 언제나 섬기는 자로서의 저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풍성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2018 년 성탄절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찌 미찌아끼(山野内 倫昭)